

수정판 《사마천 사기—중국고대사회의 형성》을 읽고

朴元燾*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東洋史料選讀> 과목과 《史記》
3. 잘못된 해석으로 추정되는 譯文
4. 정확한 번역이 아닌 譯文의 例示
5. 孔子가 '상갓집 개'에 비유되었나?
6.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약 2년 전에 고려대를 정년퇴직한 評者는 앞으로 대학에 더 이상 出講하지 않기로 진작부터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재직 때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조금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전공을 벗어나 다른 다양한 분야의 책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읽고 싶은 책들 가운데는 문학 과학 등의名著도 포함될 수 있으나, 역사학의 古典이나 역사소설도 포함이 되어 있다. 동양사학을 전공으로 했던 평자가 그동안 정독하고 싶었던 古典 중에는 《老子》, 《論語》, 《史記》 등이 있으며, 司馬遼太郎 등 몇몇 작가의 歷史小說도 머릿속의 리스트에 들어있다. 그런데 막상 書店에 나가면 재직 시에 맡았던 강의과목과 연관되는 제목의 책이 발견되면 저절로 손길이 가는 것을 어찌지 못

* 고려대 명예교수

한다. 퇴직 후 시내 대형서점에 나간 評者는 재직 시에 <東洋史史料選讀>이라는 과목을 오랜 기간 맡았었기에, 李成珪 교수 편역 《수정판 사마천 사기—중국고대사회의 형성》이 눈에 띄자 거의 본능적으로 이 책을 사게 되었다. 으레 그렇듯이 바로 읽기를 시작하지 못한 채 서재에 쌓아두었다가, 최근 책 정리를 하던 중 다시 눈에 띈 이 책을 책상 옆에 가까이 두고 가끔씩 뒤적여 보게 되었다.

《史記》 한글 역주본으로 현재까지 출간된 책은 이미 수십 종에 이르며, 完譯이 있는가 하면 抄譯도 있고, <世家>나 <列傳>만을 따로 분리시켜 출판한 경우도 있다. 譯者가 漢文에서 직접 번역한 번역본도 있고, 일본어 역본이나 영어 역본에서 한글 번역본으로 옮겨온 케이스도 없지 않다. 漢文으로 되어 있는 古典을 한글로 옮기는 일은 매우 힘든 忍苦의 세월을 필요로 하지만, 전문가에 의해 좋은 번역본이 출간된 이후 과급되는 학술문화적 영향은 숫자로 계량하기 어려운 것이다. 평자가 다른 사람의 번역본을 제쳐두고 이 책을 중시하는 이유는 《史記》 역자들 가운데 오직 이성규 교수만이 中國古代史 전공 역사학자이기 때문이다. 평자는 이 교수의 수정판 《사마천 사기》를 텍스트로 삼아 서로 허심탄회하게 商榷하며 古典翻譯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 <東洋史史料選讀> 과목과 《史記》

원래 《東洋史史料選讀》이란 과목은 동양사를 지망한 학부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이었다. 그런데 이 과목이 필수였던 시기에는 학생들에게 '怨望의 的'이 되었고, 필수에서 풀려 선택과목이 된 이후에는 학생들이 수강을 가장 기피하는 과목이 되었다. 학기가 시작되고 첫 강의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수강과목 변경신청을 하여 마치 썰물이 빠지는 것처럼 강의실을 무

리지어 나가곤 하였다. 끝까지 남은 수강생은 늘 10-20 명 정도에 머무르거나, 심지어 그 이하가 될 때도 가끔 있었다. 한 학기에 읽을 史料原文을 먼저 주고 학생들에게 미리 준비해 오게 해서, 평자가 무작위로 지명하는 순서에 따라 학생들은 이 史料原文을 해석하고 또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였다. 평자는 학생들이 각종 辭典과 씨름하며 번역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이 과목의 진짜 강의시간임을 늘상 강조하곤 하였다. 이 과목을 일단 수강한 학생들은 漢文 읽기가 힘들긴 하지만 적절한 辭典만 갖추면 독파하지 못할 史料가 없다는 자신감을 조금씩 갖는 변화가 평자의 눈에도 察知되었다.

평자가 재직 시의 강의과목 <東洋史史料選讀>에 대해 이렇게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과목에서 맨 먼저 강독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가 바로 司馬遷 《史記》였기 때문이다. 한 학기 내내 《史記》만 通讀하는 것이 아니라, 《史記》속 역사인물의 世家나 列傳을 둘 셋 정도 골라 읽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다른 인물의 列傳으로 바꾸어 읽음으로써, 이른바 ‘학습 족보’가 학생들 사이에서 流轉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史記》로부터 출발한 이 강독은 清末에 아편을 철저히 絶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담은 林則徐의 上疏文 <條陳禁烟辦法疏>까지, 주요 중국사 史料를 時代別·文體別·分野別로 고루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할 수 있는 한글 번역문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음은 한글 번역문은 없으나 외국어 역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마지막에는 전혀 어떠한 번역문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순서를 짜나갔다. 수강학생이 <東洋史史料選讀> 과목에서 맨 먼저 부딪치게 되는 紀傳體 史書의 효시인 《史記》는 <本紀> 12篇, <表> 10篇, <書> 8篇, <世家> 30篇, <列傳> 12篇으로,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史記》속에서 평자가 학생들과 함께 즐겨 읽던 부분이 <孔子世家>, <秦始皇本紀>, <陳涉世家>, <項羽本紀> 등이었다.

그런데 이성규 교수의 수정판 《사마천 사기》를 펼쳐든 평자는 뜻밖에 그리 매끄럽지 못한 譯文의 문장과 함께, 아마도 이 번역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짐작되는 부분이 자주 눈에 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교수의 번역이 모

두 옳다고 한다면 평자는 20여 년간 학생들을 잘못 가르쳐 온 셈이 될 것이고, 또한 평자의 과목을 수강했던 졸업생이 이 교수의 수정판 《사마천 사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염려도 생겨났다. 그래서 이참에 이 교수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범위를 좁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일단 <孔子世家>만을 대상으로 삼아,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 교수와 함께 商榷해 보고 싶다. 《司馬遷 史記》 전부를 다루지 않고 <世家> 30篇 중에서 <공자세가>만을 토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우선 이 교수가 10여 년 전 譯書 《孔子 - 인간과 신화》(H. G. 크릴 저, 지식산업사, 1998)를 出刊한 일이 있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토론에 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각종 학술지의 <투고요령>을 보면, <비평논문>과 <논단>의 경우 “원고지 100매 내외”로 분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孔子世家>에 대한 토론만으로도 규정된 원고 매수를 넘어설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었다.

평자는 이 교수의 원문 해석을 단순히 비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孔子世家>를 대상으로 하여 평자가 만들어 본 譯文을 제시함으로써, 역시 이 교수의 叱正을 기다리고자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평자의 원문 해석에도 오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교수는 평자와의 이 商榷을 통해 《사마천 사기》를 더 나은 古典翻譯으로 재탄생시키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3. 잘못된 해석으로 추정되는 譯文

이제 評者는 번역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의 原文을 먼저 앞에 제시하고, 다음 단락에 이 교수의 譯文과 평자의 譯文을 차례로 배열하였다. 다음에 평자가 생각하는 이 번역문의 내용에 관한 간단한 배경설명이나 또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는데, 주로 《孔子家語》, 《論語》, 《左傳》 등의 자료를 활용하

여 原文의 해석을 보완해주도록 하였다.

1) 故鼎銘云：“一命而僂，再命而傴，三命而俯，循牆而走。莫敢余侮，繼於是，粥於是，以糊余口”，其恭如是。

그래서 그의 정(鼎)에는 이러한 말이 새겨져 있다. “첫 번 서임을 받을 때는 머리를 숙이고, 두 번째는 절을 하였으며, 세 번째는 허리를 굽혔다. 담장을 잡고 황송한 마음으로 뛰었지만 아무도 감히 나를 모욕하지 않았다. 이 정에 풀과 죽을 담아 내 입에 바를 뿐이다.(검소하게 산다는 뜻)” 그는 이처럼 공경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李]

그러므로 (正考父의) 廟鼎에 새겨져 있는 말이 “첫 번째 (戴公으로부터) 임명 받을 때는 고개를 숙였고, 두 번째 (武公으로부터) 임명 받을 때는 허리를 굽혔으며, 세 번째 (宣公으로부터) 임명 받을 때는 몸을 크게 굽혀 절하였다. 평소 길을 갈 때는 담장 가에 붙어 갔지만 아무도 감히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였다. 여기(鼎, 세 발 달린 솥)에 된 죽도 쑤고, 여기에 묶은 죽도 쑤어 근근이 끼니를 이어갔다”. 그의 공순함과 검소함이 이와 같았다.[朴]

* 춘추시대 宋 나라에서 3대에 걸쳐 군주를 보필한 기록을 가진 正考父가 재상이 될 때마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더욱 겸손해져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후손인 공자도 祖上의 이와 같은 품성을 당연히 이어받았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鼎銘’은 正考父를 기념하는 家廟에 보존되어 있는 청동 솥에 새긴 銘文을 이른다. ‘循牆而走’의 해석을 “담장을 잡고 황송한 마음으로 뛰었지만”으로 해석하였으나, 國君을 뵈러 가는 大夫가 어떻게 뛰어 갈 수 있으며 더구나 “담장을 잡고” 어떻게 뛰어 갈 수 있다는 말인가? 길 한복판으로 당당하게 가도 될 신분이지만, 항상 겸손하고 근신하는 자세로 담장 가에 붙어서 갔다는 뜻이다. 또한 ‘糊口’는 “입에 풀칠하다”는 뜻이 있으나 “풀과 죽을 담아 내 입에 바를 뿐”은 정확한 번역문이라고 볼 수 없다. ‘恭’은 ‘恭敬’의 ‘恭’이 아닌 ‘恭儉惟德’의 ‘恭’으로서 ‘공순함’과 ‘검소함’을 가리키는 것이다.¹⁾

1) 《孔子家語》 卷3 <觀周篇>에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孔子家語》는 宋代 이래 거의 僞書로 간주되어 왔으나, 1973년 河北省 定縣에서 出土된 竹簡 《儒者家言》과 내용이 유사함이 알려지면서부터 ‘완전한 僞書’는 아닐 모른다는 견해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7년 安徽省 阜陽縣 雙古堆 西漢墓에도 《儒者家言》과 상응하는 簡牘이 出土되었는데, 내용이 마찬가지로 《孔子家語》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현존하는 《孔子

2) “魯用孔丘，其勢危齊”。乃使使告魯爲好會，會於夾谷。魯定公且以乘車好往。

“노가 공구를 등용하였으니, 반드시 제가 위협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경공은) 노로 사자를 보내 친목을 위해 내곡(來谷)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노 정공은 수레를 타고 그곳을 가려고 하였다”[李]

“魯 나라가 孔丘를 임용하였으니, 그 세력이 장차 齊 나라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齊景公이) 魯 나라에 使者를 보내 友好的 會盟을 위해 협곡(夾谷)에서 만나자고 알려 왔다” 魯定公은 (아무런 군사적 대비도 없이) 평시 타던 수레로 그곳에 가려고 하였다.[朴]

* ‘乘車’의 ‘乘’은 “수레를 타다”에서 “타다”라는 동사가 아니다. 이 시대에는 수레에도 ‘乘車’와 ‘兵車’가 있어 그 용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는데, 마치 오늘날로 말하자면 승용차가 있고 따로 방탄차가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담에도 武備를 갖추지 않는 평화적인 ‘乘車之會’가 있고, 또 이와 대비되는 ‘兵車之會’가 있었다. ‘危’란 ‘위협해지다’가 아니라, ‘위협하게 되다’라고 풀이하는 것이 더 알맞지 않을까? ‘내곡(來谷)’은 山東省 泰安府 萊州縣에 속한 ‘협곡(夾谷)’이란 地名을 잘못 읽은 것이다.[朴]

3) 歸與! 歸與! 吾黨之小子狂簡進取, 不忘其初.

돌아가자, 돌아가자! (노에 남아 있는) 우리 어린 제자들은 지나치게 뜻이 크고 진취적이며, 初志를 잊은 것 같구나![李]

돌아가자! 돌아가자꾸나! 나의 젊은 제자들은 원대한 뜻을 세웠고 오랫동안 修煉해왔으므로 이룩한 것도 있으며, 初志를 잊지 않고 있다![朴]

* ‘不忘其初’에서 ‘不忘’을 “잊은 것 같구나!”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論語》

家語》는 由來가 있고 일찍이 西漢時代에 이미 原型이 존재해 있었던 것이 流傳되어 왔으며, 온통 僞書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孔子家語》의 史料的 가치의 종전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 2) 《左傳》 定公10年 條에는 “夏, 公會齊侯于夾谷”이라고 간단한 기사가 나와 있다. 《孔子家語》 卷1 <相魯篇>에도 동일한 사건이 실려 있는데, 夾谷의 會盟이 시작되는 장면부터 기술되어있다.

에 나오는 비슷한 구절인 “나의 젊은 제자들은 뜻이 크고 빛나는 성취도 이루었으나, 마무리를 잘 지을 줄 모른다”는 말과 맞추어 볼 때, 이들은 初心을 잃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³⁾(朴)

4) 孔子擊磬，有荷蕢而過門者，曰：“有心哉，擊磬乎！硜硜乎！莫己知也夫而已矣！”

어느날 공자는 석경(石磬)을 치고 있었다. 소쿠리를 진 사람이 문 앞을 지나며 말하였다. “무언가 뜻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석경을 치다니!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그러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구나!”(李)

공자가 石磬을 치고 있는데, 삼태기를 지고 문 앞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내 벨 뜻이 말하였다. “心수가 복잡하구나! 석경을 치는 이는!” “쟁쟁거리는구나!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든, 그것으로 그냥 그만 둘 일이지!”⁴⁾

* 西周 周公의 시대를 최고의 理想으로 생각하고 있던 공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본분(君君臣臣父父子子)에 맞게 행동하는 ‘正名’을 통해, 春秋의 亂世를 극복하고 周公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일대 격변의 시대에 공자가 하는 노력을 부질없는 것으로 보는 道家思想에 바탕을 둔 隱士들이 주변에 가끔 등장하여 공자에게 충고를 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한다. 공자의 주장과 노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한 隱士가 어차피 세상은 제멋대로 바뀌며 굴러 갈 터인데, 공자에게 이러한 亂世에 부질없는 짓 그만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가라는 충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다. ‘心’은 ‘뜻’으로 풀이할 수 없고, ‘心思’ 즉 ‘생각’ 또는 ‘근심’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무슨 글자를 “자신감이 넘치는구나!”로 해석했는지 알 수 없다. ‘磬’은 소리 잘 나는 돌로 다듬어 만든 古代 樂器로서, 걸어 놓고 크기별로 높고 낮은音が 나는 돌을 치는 打樂器이다. ‘硜硜乎!’는 석경치는 소리의 擬聲語일 것 같으며, 知音의 경지에 달한 이 隱士는 석경 소리만 듣고서 현실을 자기의 理想대로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는 공자의 집착이 너무 강함을 느꼈다는 뜻이다. ‘莫己知也夫’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기보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

3) 《論語》 第5 <公治長篇> “吾黨之小子狂簡，斐然成章，不知所以裁之”

4) 《論語》 第14 <憲問篇>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삼태기를 지고 문 앞을 지나던 어느 隱士가 한 말 끝에 “(물이) 깊으면 옷입은 채 건너가고, 얕으면 옷을 걸고 건너다(深則厲，淺則揭)”의 구절이 더 보태어져 있다. 이 구절을 보면 물의 얕고 깊음에 따라 융통성 있는 處世를 하지 못하는 공자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으므로, 앞의 구절은 포기할 줄 모르는 공자를 딱하게 생각하는 표현이 되어야 앞과 뒤가 서로 맞을 것이다.

든”이란 뜻이어야 할 것 같다.[朴]

5) 師襄子辟席再拜，曰，“師蓋云‘文王操’也”

사양자는 자리를 피하고 두 번 절한 후 말하였다. “그렇다! 음악가들은 이것을 <문왕조(文王操)>라고 들 한다.[李]

樂師인 襄子は 자리에서 일어나 비켜서서 절을 하고 한 번 더 절한 후 말하였다. “저의 스승님께서 일찍이 ‘이 곡은 아마도 문왕(文王)이 작곡일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朴]

* ‘師襄子’가 이름이 아니고, ‘師’는 ‘樂師’임을 말해주고 있고, ‘襄子’가 이름이다.⁵⁾ 그런데 ‘襄子’가 “자리를 피하고”, 어떻게 “두 번 절”할 수가 있나? 襄子は 공자가 “周文王의 작곡”임을 맞히는 것을 보고 깜작 놀란 나머지, 최대의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잠시 비켜서 절을 하고(한번으로는 부족하다 싶어) 또 한 번 더 절을 한 것이다. 마지막의 ‘師’는 ‘樂師’ 즉 ‘음악가’라기보다 ‘(저의) 스승님’이 아닐까?[朴]

4. 정확한 번역이 아닌 譯文의 例示

여기서는 잘못된 번역의 정도가 조금 낮은 譯文을 몇 개 가려내 제시하고자 한다. 단순히 뉘앙스를 살리지 못한 것은 모두 제외하고, 번역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위주로 하여 例示하고자 한다.

1) 孔子爲兒嬉戲，常陳俎豆，設禮容。孔子母死，乃殯五父之衢，蓋其慎也。 陬人

5) 《論語》 第18 <微子篇>에 “少師 陽과 석경 치던 襄子가 海島로 들어갔다(少師陽擊磬襄，入於海)”란 구절을 보면, ‘襄’이 이름이고 ‘子’는 존칭으로 붙인 것을 알 수 있다. 《孔子家語》 卷8 <辯樂解篇>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襄子가 孔子에게 “선생님은 聖인이십니다!(子，聖人也)”라고 하며, 탄복하는 말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輓父之母誨孔子父墓，然後往合 葬掌於防焉。

공자는 어릴 때 장난을 하면서도 늘 제기를 차려놓고 마치 의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예를 갖추었다. 공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오보(五父)라는 거리에 빈소를 모시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묘소를 수소문하였다). 추인(隄人) 만보(輓父: 상여꾼)의 어머니가 공자에게 아버지 묘소를 가르쳐 준 연후에 방(防)에 가서 아버지와 합장을 하였다.〔李〕

공자는 어려서 소꿉놀이할 때도 늘상 祭器잡시고 (작은 접시들을) 늘어놓고, 祭祀 지내는 禮儀 동작을 흉내 내었다. 공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五父之衢에 殯所를 차렸는데, 대개 그의 신중함을 나타내어 준다. 隄邑 사람 輓父의 모친이 아버지 墓所를 가르쳐 준 후에야 (어머니 靈柩를) 防山으로 옮겨 合葬하였다.〔朴〕

* 공자가 어릴 때 적당한 장난감이 있을 리가 없으므로 공자는 작은 접시나 그릇들을 늘어놓고 절하며 제사 올리는 흉내 내기를 좋아했다. 또 ‘五父之衢’에 殯所를 차린 것은 아버지의 葬地를 보다 널리 수소문하기 위함이었다. 공자는 어머니 靈柩를 반드시 아버지 墓所에 合葬하려고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埋葬하지 않고 수소문하던 중, ‘輓父’의 모친이 아버지 묘소 위치를 防이라고 알려 주었다. 여기서 ‘五父之衢’가 거리 이름이고, ‘輓父’는 ‘상여꾼’의 뜻이지만 ‘마차꾼’의 ‘接輿’와 마찬가지로 人名으로 사용되었다. ‘防’은 지금 山東省 曲阜縣 동쪽의 防山을 가리킨다.〔朴〕

2) 孔子貧且賤. 及長，嘗爲季氏史，料量平. 嘗爲司職吏而蓄蕃息. 由是爲司空. 已而去魯，斥乎齊，逐乎宋衛，困於陳蔡之間，於是反魯.

공자는 빈천하였다. 청년이 되자 계씨의 창고지기가 되었는데, 저울질을 공정하게 잘 했으며, 또 가축 사육을 맡았을 때는 가축이 잘 번식하였다. 그 후 그는 사공(司空)이 되었으나 얼마되지 않아 노를 떠났다. 그러나 그는 제에서 내쫓기고 송위(衛)에서도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진(陳) 채 사이에서는 곤경에 처하다 결국 다시 노로 돌아왔다.〔李〕

공자는 가난한 데다 또 신분도 낮았다 다 자란 후에 季氏의 小吏가 되어 창고로 관리했는데 出納을 매우 공정하게 잘하였으며, 가축을 기르는 직책을 맡았을 때는 모두 새끼도 잘 낳고 살찌게 잘 키웠다. 공자는 이로부터司空이 되었다가 얼마 후

魯 나라를 떠났다. 齊 나라에서는 배척을 받았고, 宋 나라와 衛 나라에서는 내쫓겼으며, 陳 나라와 蔡 나라 사이에서 붙잡혀 곤욕을 겪다가 다시 魯 나라로 돌아왔다.〔朴〕

* 공자는 ‘士’ 계층에 속하였으나, 春秋末期에 ‘士’는 그 수가 크게 증가하여 귀족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평민과 뒤섞여 사실상 서민계층과 별 차이가 없게 되었다. 6) 孔子가 齊 나라에 있을 때 宰相 晏嬰 등을 비롯한 귀족들의 견제로 말미암아, 처음에 공자에게 우호적이던 齊景公이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어 냉담하게 대하고, 또 齊 나라 大夫들이 자기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들리자 서둘러 齊 나라를 떠났다. ‘斥’은 ‘내쫓긴’ 것이라기보다 ‘따돌림’ 즉 배척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신변의 위협이 감지되자 공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떠난 상황이었다. 또 “송·위(衛)에서도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라고 번역하였는데, ‘逐’이야말로 ‘驅逐’ 즉 ‘내쫓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것을 ‘도망하다’로 번역한 것은 고전번역의 엄밀성을 살리지 못한 것이다.〔朴〕

3) “爲人子者毋以有己, 爲人臣者毋以有己”

효자는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충신은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李〕

“자식된 자는 자기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신하된 자는 자기만을 내세워서는 아니 됩니다”〔朴〕

* 古典의 학술적 번역에서는 意譯의 폭을 너무 확대시켜서는 안 되고, 譯者는 모름지기 정확한 譯文을 만드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식된 자’가 왜 ‘효자’로, ‘신하된 자’를 왜 ‘충신’으로 비약시켜야 할 필요가 있나?〔朴〕

4) “秦, 國雖小, 其志大, 處雖辟, 行中正. 身舉五穀, 爵之大夫, 起疊紼之中, 與語三日, 授之以政. 以此取之, 雖王可也, 其霸小矣” 景公說.

진은 비록 나라의 작아도 뜻이 雄大하였고, 궁벽한 곳에 처해 있어도 행동이 바

6) 《論語》 第9 <子罕篇>에서 공자는 “나는 젊어서 미천했기 때문에, 천한 일을 많이 할 줄 알게 되었다(吾少也賤, 故多能鄙事)”라고 스스로 술회하였다.

랐기 때문입니다. 목공은 노예의 대열에 묶여 있는 백리해(百里亥)를 몸소 일으켜 세워 대부의 작을 내리고, 3일간 대화를 나눈 후 그에게 정사를 맡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하를 취하였다면 목공은 왕자(王者)도 될 수 있었는데, 패자가 된 것은 대단치도 않습니다. 경공은 감탄하였다.[李]

“秦은 나라는 비록 작지만 뜻이 원대하고, 터전은 비록 편벽되지만 (政畧이) 바로 적절하게 행하여졌습니다. 秦穆公은 스스로 5장의 黑羊皮로 贖還해 온 (百里亥에게) 大夫의 爵을 내렸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몸을 풀어 사흘간 더불어 얘기 나눈 후 政權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王者도 될 수도 있었는데, 霸者가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景公이 기뻐하였다.[朴]

* ‘行中正’에서 ‘行’은 ‘행동’이라는 명사로 번역해서는 안 되며 ‘행하다’라는 동사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中正을 행하다’라는 뜻을 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說’은 곧 ‘悅’과 통하니, ‘감탄하였다’가 아닌 ‘기뻐하였다’가 더 옳을 것이다.[朴]

5) 孔子曰, “吾歌可夫?” 歌曰, 彼婦之口, 可以出走. 彼婦之謁, 可以死敗. 蓋優哉! 遊哉! 維以卒歲! 師己已反, 桓子曰, “孔子亦何言?” 師己以實告. 桓子喟然嘆曰, “夫罪我以群婢故也夫!

공자 “내가 노래를 불러도 되겠는가? (그는)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저 아녀자의 입, (군자를) 떠나게 하는구나!

저 아녀자의 말, (군자를) 패사(敗死)시키는구나.

마음 편안히 놀자꾸나! 죽을 때까지>

사기가 돌아오자 환자가 물었다. “공자가 또 무어라고 하던가?” 그가 사실대로 고하자 환자는 크게 탄식하였다. “나는 종년들 때문에 선생께 죄를 짓고 말았구나! [李]

공자는 “내가 노래 한 곡을 불러볼까? 그 가사는 이리했다.

<저 여인네들의 주둥이, (賢臣을) 내쫓을 수 있고.

저 여인네들의 고자질, (君子를) 죽일 수도 있다네.

느긋하고 한가롭게 노닐어 보세! 이 목숨 다할 때까지>

樂師 己가 돌아오자 桓子가 “공자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 樂師 己가

사실대로 고하자, 桓子は 길게 탄식하며, “선생께서는 계집년들 (받아들였던 일)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로다!〔朴〕

* 魯의 季桓子가 齊나라에서 보낸 80명의 舞姬와 駿馬 30필로 구성된 女樂을 받아들이고 3일간 政事를 돌보지 않았다. 이에 크게 실망한 공자가 魯나라에 대해 희망을 잃고 魯나라를 떠나면서 불렀다는 노래의 가사를 季桓子에게 전해 준 사람은 공자를 郭屯까지 전송하고 돌아 온 樂官의 長인 己였다. ‘歌曰’은 ‘歌詞’에 이르기들의 뜻이라야 더욱 정확할 것이며, 또 季桓子의 발언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식의 직설적인 話法이 아니고, 공자가 한 발언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풀이하여, “나를 罪 주시는구나!”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罪’는 명사가 아니라 ‘벌주다’ 또는 ‘책망하다’의 뜻의 동사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⁷⁾〔朴〕

5. 孔子가 ‘상갓집 개’에 비유되었나?

여기에서도 잘못된 번역으로 추정되는 譯文을 다루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공자를 ‘상갓집 개(喪家之狗)’로 묘사한 이 유명한 대목을 한번 깊이 있고 세심하게 다시 검토해 보기 위함이다. 우선 공자를 ‘상갓집 개’로 비유한 이 대목의 原文을 먼저 읽고 난 다음, 두 譯文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孔子適鄭，與弟子相失，孔子獨立郭東門。鄭人或謂子貢曰，“東門有人，其類似堯，項類臯陶，其肩如子產，從腰部以下比禹倭三寸，纍纍若喪家之狗”子貢以實告。孔子欣然笑曰，“形狀，未也。而謂似喪家之狗，然哉！然哉！”

공자는 정(鄭)으로 갔으나, 제자들과 서로 길이 엇갈려 혼자 동문 앞에 서 있었는데, 어떤 정인(鄭人)이 자공(子貢)을 보고 말하였다. “동문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이마는 요(堯)와 닮았고, 목은 고요(臯陶)와 유사하며, 그 어깨는 자산(子產)과 비슷하다. 그러나 허리 아래는 우(禹)보다 3寸이 짧은데, 풀죽은 모습이

7) 《孔子家語》 卷5 <子路初見篇>에 같은 사건이 훨씬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記事를 통해 季桓子가 女樂을 받아들인 후 “君臣이 淫荒을 일삼아 3일 동안 國政을 돌아보지 않았다(君臣淫荒，三日不顧國政)”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樂師 己가 공자를 전송하러 郭屯까지 갔다 온 것도 알 수가 있다.

마치 상갓집 개 같다” 자공은 이 말을 그대로 공자에게 전하였다. 공자는 혼연히 웃으면서 말하였다. “용모는 중요하지 않으니 (무어라 해도 상관없지만), 상갓집 개를 닮았다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암, 틀림없고말고!”(李)

공자가 鄭 나라에 갔을 때 제자들과 서로 길이 어긋나 홀로 떨어져 성곽의 동문 앞에 서있었다. 어느 鄭 나라 사이 子貢을 보고 말하기를, “동문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마는 髡를 닮았고, 그의 목은 臯陶와 비슷하며, 그의 어깨는 子産과 같았다. 그러나 허리 아래는 禹보다 3寸이 짧은데, 피죄죄하고 낭패한 꼴이 마치 집으로 돌아 갈 길을 잃은 개와 같았다” 자공이 이 말을 공자에게 고하니, 공자가 혼연히 웃으면서 말하였다. “모습은 그리 중요치 않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은 개’ 같았다는 말은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랬겠구나!”(朴)

* ‘喪家之狗’를 ‘상갓집 개’로 해석하는 것은 비단 이성규 교수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史記》 연구자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이 교수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절대다수의 학자들의 해석을 따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評者は 오래 전부터 이 ‘喪家之狗’를 ‘상갓집 개’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은 개’로 해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喪家之狗’를 ‘상갓집 개’로 해석하는 것은 이미 劉宋 裴駟의 《史記集解》에서 三國時代 魏 나라 王肅의 말을 인용한 데서 시작된다. 王肅은 “喪家之狗란 주인이 애통하고 황망한 나머지 음식을 얻어먹지 못한 개가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이며, “공자가 亂世에 태어나 道가 행하여지지 않아 뜻을 얻지 못하고 초라해진 모습”과를 대비시켰다. 비슷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평소 개를 돌보아 주던 주인 자신이 죽었으므로 개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 불쌍하고 처량하게 된 꼴로 풀이하는 說도 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학자들은 ‘喪’을 平聲이 아닌 去聲으로 읽을 때 즉 동사로 읽을 때 ‘喪, 失也’라는 字意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즉 ‘喪失’이란 어휘가 흔히 쓰이고 있듯이, ‘喪 = 失’이므로 ‘喪家之狗’를 ‘失家之狗’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⁹⁾

이 해석은 40년 전 評者가 臺灣大學 歷史系에 유학하고 있던 시절에 漢學者

8) 唐 나라 司馬貞의 《史記索隱》에는 《孔子家語》를 인용하여 子貢에게 공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며, 공자를 ‘喪家之狗’에 비유한 사람의 이름이 姑布子卿으로 추가되어 있다.

9) 물론 歷代에 걸쳐 ‘상갓집 개’의 뜻으로 사용된 用例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失家之狗’의 뜻으로 사용된 用例도 소수이기는 하나 없지는 않다. 焦贛 《易林 解之坎》의 “失持無友, 嘉禍出走, 僕如喪狗”나 또는 宋 나라 蘇東坡의 詩 <次韻周開祖長官見寄>의 “惘惘可憐喪狗” 등이 있다.

毓蘧 선생에게서 배운 것이다.¹⁰⁾ 毓蘧 선생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이것뿐 만이 아니지만, 이 說을 처음 들은 이후 생각을 거듭할수록 이 해석이야말로 당시 孔子의 정황에 훨씬 더 맞아 들어간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사실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여 깊이 생각을 해보면 '상갓집 개'는 먹을 것이 결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 喪家에는 으레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문상객들이 주위에서 맴도는 개에게 먹을 것을 던져 줄 수도 있고 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 부스러기도 있을 것이다. 설령 평소에 개를 보살피 오던 주인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대가족이 기거하는 집안에서, 주인이 돌보던 개가 굶주릴 정도로 가족 모두가 모른 채 방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비록 자기를 돌보아주던 주인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상갓집 개'는 적어도 자기 집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단 안온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자는 遊說 도중 衣·食·住·行을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을 보살피 주던 제자들과 헤어져 異域에서 외톨이가 되어, 재회를 기약할 수 없게 된 정황이었던 것이다. 피죄죄한 모습으로 성곽 동문에 우두커니 서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공자는 배도 고팠겠지만, 그것보다 해가 곧 저물 터인데 갈 길을 잃은 낭패함으로 말할 수 없이 초조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氣骨은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 사람을 눈여겨 봐 두었던 어느 鄭 나라 사람이 子貢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며, 마치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은 개"와 같았다고 묘사한 것이 당시 공자가 처해진 정황에 더욱 어울리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당시 공자에게는 '굶주림'보다 '길 잃음'이 더욱 큰 문제였으므로, 비록 喪事가 생겨 집안이 분주해졌지만, 자기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갓집 개'와 공자가 처한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갓집 개'는 반드시 굶주릴 것이라는 전제 자체도 맞지가 않다는 것이 평자의 생각이다.

10) 평자는 3년 반의 대만대학 유학 기간 중 1972년 여름부터 귀국할 때까지 1년 반은 아예 毓蘧 선생 댁으로 들어가 선생과 宿食을 함께 하며 많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평자를 毓蘧 선생에게 데려가 소개해주고 이후 恩顧를 받도록 해준 이는 당시 대만대학 博士課程에서 <司馬遷의史學方法與歷史思想>이란 주제로 박사학위논문 준비하고 있던 대만 친구 阮芝生이었다. 阮芝生은 이듬해 박사학위를 받고 대만대학 조교수로 남아 이후 司馬遷과 《史記》에 관한 많은 논저를 발표하여 《史記》 연구의 저명한 학자가 되었다.

評者が《史記》의 <孔子世家>에서 이와 비슷한 의미로 ‘喪’ 자를 사용한 用例 하나가 갑자기 눈에 크게 들어 온 것은 귀국하고 나서 10년도 훨씬 더 지나서였다. <東洋史史料選讀> 강의에서 <孔子世家>의 다음과 같은 대목을 학생들과 함께 읽던 도중, 마치 電光石火와 같이 평자의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공자 일행이 陳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匡의 땅을 거쳐 가야만 하였다. 그런데 공자는 예전에 이곳을 침략하여 포악하게 굴었던 魯 나라 陽虎와 외모가 닮았기 때문에, 陽虎로 誤認되어 일행이 5일간 拘留된 일이 있었다.¹¹⁾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제자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자, 공자는 거꾸로 터무니없이 樂天的인 논리로 제자들의 불안을 일단 잠재웠다.

광인이 공자를 더욱 다급하게 구속하자 제자들은 두려웠다. 공자는 제자들을 위로하였다. 주 문왕이 죽은 이래, 그 문화의 담당자는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하늘이 그 문화를 파괴하려고 하였다면, 나에게 처음부터 그 문화를 알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이 그 문화를 파괴하려 하지 않는데, 광인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李)

匡城 사람들이 공자를 예위산 포위망을 점차 조여오니,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 공자가 말하였다. “文王은 이미 죽었지만, 周 나라의 禮樂은 남아 있지 않는가? 하늘이 만약 이 禮樂을 잃게 하려고 했다면, 뒤에 죽을 사람(孔子 자신)으로 하여금 禮樂을 수호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이 아직 이 禮樂을 잃게 하려 하지 않는데, 匡城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다는 말인가?(朴)

匡人拘孔子益急，弟子懼。孔子曰，“文王既沒，文不在乎？天之將喪斯文也，後死者不得與于斯文也。天之未喪斯文也，匡人其如予何？”

* ‘匡’은 지금 河南省 長垣縣의 ‘匡城’이다. ‘拘’란 ‘拘束’이라기보다 ‘拘留’라고 번

11) 공자의 외모가 陽虎와 닮았다는 말은 “孔子狀類陽虎”를 번역한 말로서, 대부분의 《史記》 연구자들이 이 해석을 택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풀이하는 소수의 문인들도 있다. 사실 평자는 소수 연구자의 해석에 좀 더 기울어져 있는 편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別稿에서 따로 다루고자 한다.

역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斯文’을 막연히 ‘문화’라고 번역하기보다 공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던 周 나라 ‘禮樂’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떨까?¹²⁾ [朴]

바로 이 문단의 “天之將喪斯文也”와 “天之未喪斯文也” 속에 각각 ‘喪斯文’이 들어 있는데, 여기서도 “禮樂制度를 잃게 하다”의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대목의 ‘喪’ 자도 ‘喪家’ ‘喪禮’의 ‘喪’이 결코 아니고, “喪, 失也”의 ‘喪’ 즉 ‘失’의 뜻에 가깝게 쓰이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성규 교수의 《수정판 사마천 사기》의 <孔子世家> 번역을 검토하여 보았다. 《사마천 사기》 전체 130편 중에 <世家>가 30편인데, 이 30편 <世家> 중 1편인 <孔子世家>만을 대상으로 문제가 있을 듯한 譯文에 대해 평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 譯文까지 내놓았다. <孔子世家>만 해도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될 만한 문제가 다수 추출되는 것을 보면, 《사마천 사기》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6. 나오는 말

《수정판 사마천 사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사기 해설—《사기》의 구조적 이해를 위한 시론>이란 해설이고, 다른 하나는 《사기》 자체의 선별적 번역으로 차례 등을 다시 구성했기 때문에 결국 ‘編譯’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작업과 연구를 해놓고도 결국 ‘著書’도 아니고 ‘譯書’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編著’도 아닌 ‘編譯’이란 형식으로 낼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점에 대해 짙은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12) 《論語》 第9 <子罕篇>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없다. 비록 2-3년 시일이 더 걸리더라도 “연구의 그랜드디자인(Grand design)”에 신경을 좀 더 썼더라면, 《(史記를 통해 본) 중국고대사회의 형성》이란 멋진 저서와 《(역사가가 번역한) 史記 選譯》이란 참신한 역서를 탄생시킬 수가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아깝고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 책의書名은 《사마천 사기—중국고대사회의 형성》으로서, 《사마천 사기》가 주제이고 <중국고대사회의 형성>은 부제이다. 이 교수는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고 말한다.

원칙적으로 卷 단위로 完譯한 후, 본래의 編次를 완전히 무시한 채 몇 개의 커다란 주제별로 그것을 배열하고,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재구성된 編章의 題名도 붙이고 그 아래 배열한 항목도 본래 《史記》의 篇名은 () 안에 넣어 뒤로 돌리고 편역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제목을 앞에 내세우기로 하였다. [* 밑줄은 평가]

그런데 이 교수는 <사기 해설>에서 자신이 내렸던 다음과 같은 평가와 정면으로 矛盾되고 있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그 어느 것도 자신이 알고 있는 풍부한 지식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후 역대 중국 정사(正史)의 모범이 된 독특한 기전체(紀傳體)를 창안하였고, 아울러 이 체제(體裁)에 적합한 문장과 서술방식을 개발한 것이다. 즉 《사기》의 체제와 서술방법은 단순한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교적인 요령의 차원이 아니라 저자가 이해한 역사상과 사관이 응집된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독특한 구성 체제와 서술 방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기》의 전체적인 진가도 제대로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개개 서술의 내용도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¹³⁾ [* 밑줄은 평가]

해석이 다른 부분을 살펴보던 중 <초판>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 지 궁금해진 평가는 初版 《사마천 사기》를 구해다가 몇 곳을 대조해 보았다. 그랬

13) 이성규 편역, 《수정판 사마천 사기—중국 고대사회의 형성》, <사기 해설>, 서울대학 교출판부, 2007, 72쪽.

더니 <수정판>¹⁴⁾과 <初版>의 번역문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닌가! 서둘러 <수정판 서문>을 찾아보니, “1987년 9월 7일” 일자로 된 <초판> “편역자의 말”을 그대로 싣고, 그 뒤에 1쪽 미만의 덧붙인 말의 형식으로 “2007년 3월 5일자”의 <수정판 서문>이 들어 있었다. 그 덧붙인 말 가운데서 이성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기존 번역서의 체제를 수정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여 금번 개정판은 다만 기존 번역서에서 한자를 없애거나, 고유명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만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형식의 기술적 작업에만 그치고 말았다. 독자들이 새로운 수정판을 기대했다면 다소 실망스러울 지도 모르겠지만, 한글 위주로 출판하는 최근의 시대적 분위기에 맞추었다는 점에서는 별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본격적인 수정판은 다음을 기약하고자 한다.¹⁵⁾

수정판 <편역자의 말>에서 “수정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여” 마침내 “기존 번역서에서 한자를 없애거나, 고유명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만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형식의 기술적 작업에만 그치고 말았다”는 해명에는 선뜻 수긍하기가 어려웠다. 한마디로 이 책이 ‘수정판’인가 또는 ‘수정판’이 아닌가가 불분명한 것이다. 만약 ‘수정판’이라면 왜 ‘수정’한 곳이 보이지 않는 것이며, 또 만약 ‘수정판’이 아닌데도 서울대학교출판부가 ‘수정판’ 타이틀을 붙이고 편역자는 이를 용인하며 ‘수정판 서문’에 해당하는 글을 써주었다고 해도 몇 가지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성규 교수가 <초판>을 낸 이후 <수정판>을 내게 되는 20년 사이에 수십 종의 실로 다양한 《史記》 번역본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 교수의 《사마천 사기》는 무엇보다도 중국 고대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의 번역이라는 점

14) 《出版辭典》(한국출판연구소 편저, 2002)에는 ‘수정판’이란 어휘는 없고 ‘개정판(改訂版)’이란 어휘가 있었는데, “이미 낸 책의 내용을 고쳐 다시 출판한 책”으로 설명되어 있었다. 《수정판 사마천 사기—중국 고대사회의 형성》의 <편역자의 말>속에서는 ‘개정판’이라고 쓰고 있으나, 표지에는 온통 ‘수정판’이란 용어를 썼다.

15) 이성규 편역, 《수정판 사마천 사기—중국 고대사회의 형성》, <편역자의 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71-72쪽.

에서 충분히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史記》는 이성규 교수가 중국고대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학문적 源泉이기도 하지 않던가! 아무쪼록 이성규 교수가 다음을 기약한 “본격적인 수정판”의 출간을 준비하는데, 이 비평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수정판”은 역사학자의 안목을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는 《사마천 사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6. 25.			2012. 8. 21.	2012. 8. 31.